



소개

리베르소 트리뷰트 듀오페이스 스몰 세컨즈

리베르소의 시대를 초월하는 다양한 매력을 기리는
블랙 및 블루 컬러의 새로운 다이얼

주요 특징:

- **아이코닉한 듀오페이스 메커니즘:** 칼리버 854, 160 개의 부품, 2 개의 타임존, 42 시간 파워 리저브
- **시그니처 회전 케이스:** 50 개의 부품으로 구성
- **새로운 다이얼 컬러:** 오리지널 타임피스를 떠올리게 하는 간결한 블랙 컬러와 24 겹의 컬러 및 투명 래커 처리된 선명한 블루 컬러
- **세련된 뒷면 다이얼:** 1931 년에 선보인 앞면 다이얼의 미학을 반영한 더욱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

예거 르쿨트르는 리베르소의 독특한 회전 케이스와 아르데코 디자인의 시대를 초월하는 현대성을 강조한, 리베르소 트리뷰트 듀오페이스 스몰 세컨즈의 두 가지 새로운 버전을 선보입니다. 간결한 블랙 그리고 선명한 블루 컬러로 새롭게 디자인된 뒷면 다이얼을 갖춘 새 모델은 1930 년대 초창기 리베르소 모델이 선보였던 컬러 다이얼에 경의를 표합니다.

폴로에서 영감을 받아 시대를 초월한 아이콘으로

1931 년에 출시된 리베르소는 당시 유행을 선도했던 ‘스포츠를 즐기는 신사(sporting gentleman)’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1858-1947 년 당시 영국령 인도에 주둔하던 장교들은 격렬한 폴로 경기를 하는 동안에도 파손되지 않는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시계를 제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형태와 기능을 완벽하게 통합한 리베르소가 탄생했습니다. 각계각층의 트렌드세터들로부터 즉각적인 호응을 얻었던 리베르소는 곧 남성과 여성을 위한 새로운 버전이



등장하면서 본래의 스포츠용 목적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리베르소의 아이코닉한 양면 케이스(특히 CH159982)와 독특한 아르데코 라인은 현재까지 변함없이 유지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치가 되었습니다.

리베르소는 스타일과 기능의 완벽한 결합으로 탄생했습니다. 아르데코 미학에 기반을 둔 이 모델은 그랑 메종의 전문성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리베르소의 칼리버는 생산 초기부터 직사각형 케이스의 곡선을 따라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극대화하여 칼리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독창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1931 년, 이 모델은 파인 위치메이킹의 혁명으로 여겨졌습니다. 독특한 직사각형 케이스에는 그 형태에 맞춰 디자인된 칼리버를 장착했으며, 충격과 습기, 세월의 흐름으로부터 칼리버를 보호하기 위해 전용 케이싱 링에 고정했습니다.

매뉴팩처의 이러한 기술적 도전은 1990 년대 초, 예거 르쿨트르가 리베르소에 하이 컴플리케이션을 도입하면서 완전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994 년 메종은 듀오페이스(역사적 특허 EP0633514)를 출시했는데, 이는 뒷면에 두 번째 다이얼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단순한 스타일 대비를 뛰어넘은 독특한 두 개의 다이얼은 각 다이얼에 서로 다른 기능을 도입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지닌 창조의 영역을 열어주었으며, 리베르소는 예술적 표현과 위치메이킹 독창성을 위한 캔버스로 변신했습니다. 이 타임피스의 탁월함은 백투백 다이얼에 있는데, 각 다이얼은 단일 무브먼트로 구동되며 핸즈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듀오페이스 칼리버는 뒷면 핸즈의 회전을 역전시키는 두 번째 기어 트레인을 사용하여 양쪽 다이얼 시간을 각각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앞면 미닛 핸드에 연결된 기어가 뒷면으로 움직임을 전달해 주어 별도의 메커니즘을 통해 타임존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5 년의 리베르소 트리뷰트 듀오페이스 스몰 세컨즈는 각 다이얼에 다른 타임존을 표시합니다. 또한, 앞면 다이얼에는 스몰 세컨즈가, 뒷면 다이얼에는 24 시간 나잇&데이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었습니다. 직사각형 리베르소 케이스에 맞게 디자인된 핸드 와인딩 칼리버 854 는 각 다이얼의 분과 앞면 다이얼의 시간을 크라운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세컨드 타임존의 시간은 케이스 밴드 상단에 장착된 작은 슬라이더로 조정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슬라이더는 케이스를 캐리지에서 분리하여 뒤집을 때를 제외하고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아 세련된 케이스 디자인이 완벽하게 유지됩니다. 캐리지 내부에 깊이 새겨진 선레이 패턴은 시각적인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1930 년대 오리지널 리베르소에 경의를 표하는 새로운 컬러의 다이얼과 간결한 디자인

듀오페이스의 듀얼 타임존 컴플리케이션과 트리뷰트 컬렉션의 간결한 디자인을 결합한 두 가지 새로운 리베르소 트리뷰트 듀오페이스 스몰 세컨즈는 초기 리베르소 모델과 마찬가지로 스틸 케이스로 제작되었습니다. 리베르소를 출시한 지 1 년도 채 되지 않아, 그랑 메종은 주문 제작으로 완성된 컬러 다이얼을 선보이며 심플한 디자인에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간결한 블랙 또는 선명한 블루 컬러의 선레이 브러싱 다이얼을 갖춘 두 가지 새로운 에디션은 1931 년 오리지널 리베르소의 블랙 다이얼에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초기에 사용되었던 컬러 다이얼을 떠올리게 하여 리베르소 스토리를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블루 다이얼에 사용된 래커링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복잡한 작업으로, 24 겹의 컬러 및 투명 래커를 도포하여 시각적 깊이를 더해줍니다. 다음 레이어를 바르기 전에 꼼꼼하게 건조해야 하는 이 모든 과정은 수작업으로 진행됩니다.

리베르소 트리뷰트 다이얼의 시그니처 아이콘은 1930 년대 초기 모델의 순수함을 떠올리게 하며, 시간은 숫자가 아닌 아플리케 인덱스로 표시됩니다. 길고 슬림한 형태와 각면 처리한 옆면은 시각적 깊이를 더하며 도피네 핸즈와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6 시 방향 스몰 세컨즈 디스플레이의 원형 트랙은 다이얼 및 케이스의 기하학적 라인과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더욱 세련되고 현대적인 스타일로 새롭게 디자인된 뒷면 다이얼은 원과 직선 사이에 긴장감을 선사하며, 전체 선레이 브러싱으로 통일된 배경은 빛을 받을 때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실버 톤으로 반짝입니다. 긴 인덱스의 이중 라인은 다이얼 위아래에 자리한 3 개의 시그니처 가드룬과 어우러지며, 6 시 방향의 24 시간 서브 다이얼을 위한 강렬한 시각적 배경이 되어줍니다.

두 가지 새로운 리베르소 트리뷰트 듀오페이스 스몰 세컨즈 모델에는 다이얼 컬러와 어울리는 2 개의 교체 가능한 스트랩이 함께 제공됩니다. 스트랩은 폴로 및 라이딩 부츠 제작사로 유명한 아르헨티나의 까사 파글리아노가 디자인했습니다. 가죽과 캔버스를 결합한 버전은 여름 폴로 경기용으로 까사 파글리아노에서 선보인 캔버스 및 가죽 부츠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다른 버전은 전체 송아지 가죽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리베르소 트리뷰트 듀오페이스 모델들은 아르데코 디자인의 다양한 매력을 강조합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시대를 초월하는 디자인과 정교한 기계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오래도록 클래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모던한 디자인의 타임피스를 선보입니다.



상세 정보

리베르소 트리뷰트 듀오페이스 스몰 세컨즈 - 블랙

케이스: 스틸

크기: 47mm x 28.3mm x 10.34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54

기능: 시, 분, 스몰 세컨즈(앞면), 세컨드 타임존, 24 시간 인디케이터(뒷면)

파워 리저브: 42 시간

앞면 다이얼: 블랙 선레이

뒷면 다이얼: 실버 컬러 선레이

방수: 3 바(bar)

스트랩: 2 개의 교체 가능한 까사 파글리아노 디자인 스트랩: 블랙 송아지 가죽, 그레이 캔버스 및 송아지 가죽

버클: 교체 가능한 더블 폴딩 클래스프

제품 번호: Q398847J

리베르소 트리뷰트 듀오페이스 스몰 세컨즈 - 블루

케이스: 스틸

크기: 47 x 28.3mm, 두께 10.34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54

기능: 시, 분, 스몰 세컨즈(앞면), 세컨드 타임존, 24 시간 인디케이터(뒷면)

파워 리저브: 42 시간

앞면 다이얼: 블루 선레이 래커

뒷면 다이얼: 실버 컬러 선레이

방수: 3 바(bar)

스트랩: 2 개의 교체 가능한 까사 파글리아노 디자인 스트랩: 블루 송아지 가죽, 블루 캔버스 및 송아지 가죽

버클: 교체 가능한 더블 폴딩 클래스프



제품 번호: Q3988481

리베르소 소개

1931 년, 예거 르쿨트르는 20 세기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자리매김한 리베르소를 출시했습니다. 격렬한 폴로 경기를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워치는 세련된 아르데코 라인과 독특한 회전형 케이스 디자인으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코닉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90 년 동안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 리베르소는 79 개의 다양한 칼리버를 탑재하고 39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메탈 소재의 다이얼 뒷면은 에나멜링과 인그레이빙 또는 젤스톤으로 장식할 수 있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되었습니다. 리베르소가 출시한 지 90 여 년이 지난 오늘날, 리베르소는 탄생에 영감을 준 모던함의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르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 왔으며 430 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 여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0 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jaeger-lecoultre.com